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라크

Republic of Iraq

2020년 6월 23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38천 km ² 	인구 39.3백만명 (2019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미, 친이란 
GDP 2,233억 달러 (2019년) 	1인당GDP 5,679 달러 (2019년) 	통화단위 Iraqi Dinar (ID) 	환율(U\$기준) 1,182 (2019년)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이라크 국민은 대부분 이슬람교(전체 인구의 97%)이나 시아파(67%) 대 수니파(30%)로 양분되어 있으며, 쿠르드족(18%)은 이라크 북부에 자치정부를 수립 및 관할하고 있는 등 국가 내 여러 종파, 민족이 공존하며 갈등 양상을 보임.
- 미국과 이란은 2014~17년 이라크 영토 내 IS(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의 전쟁 지원을 계기로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이라크는 미국-이란 간의 갈등에 취약한 상황에 놓임.
- 2018년 원유 확인매장량 기준 1,472억 배럴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원부국이나 2014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약세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 및 OPEC+ 감산 합의 이행 등으로 경제 역성장, 경상수지 적자 전환,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오랜 전쟁으로 인한 전기·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족, 실업난 등에 대한 불만이 2019년 10월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며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의회 내 권력이 여러 정파로 분산되어 있어 총리 선임을 비롯하여 정책 추진에 제약이 큰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7. 9. 수교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 1980. 10. 10. 단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83), 항공운수협정('86), 문화협정('8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461,632	1,911,537	1,945,069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레일
수입	6,371,009	9,569,140	7,994,634	원유, 석유제품, 자동차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7건, 382,09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e	2020 ^f
경제성장률	15.2	-2.5	-0.6	3.3	-5.8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2	0.4	-0.2	0.4
재정수지/GDP	-13.5	-4.2	4.8	-3.9	-26.3

자료: IMF, EIU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석유 부문 위축으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5.8%) 전망

- 이라크는 석유 부문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 2019년 배럴당 64.04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가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증산 전쟁 등의 악재로 2020년 이라크 경제는 -5.8%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2020년 국제유가 폭락 및 OPEC+ 최대 규모 감산 합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전 세계적 봉쇄(lock down) 조치로 자동차·운송·여행 등 교역 및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국제유가는 폭락하였음(OPEC Basket Price* 기준 배럴당 2020년 1월 65.10달러 → 2월 55.53달러 → 3월 33.92달러 → 4월 17.66달러 → 5월 25.17달러 → 6월 36.08달러).

* OPEC Basket Price는 OPEC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7개 대표 유종을 가중평균한 원유가격

- 이에 대한 대응으로 OPEC 소속 14개국과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사상 최대 감산 규모인 하루 9.7백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였으며, 이중 이라크의 감산 할당량은 하루 약 1.06백만 배럴 규모임.
- 이라크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부문의 침체(국제유가 폭락 및 최대 감산)로 2019년 -3.9% 수준이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0년 -26.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전기·연료·식료품 보조금 지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이라크 정부는 전기·연료·식료품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었으며(2016년 0.4% → 2017년 0.2% → 2018년 0.35%), 2019년에는 소비지출이 더욱 감소하여 -0.2%의 물가하락을 기록함. 보조금 삭감 시 시위 발생 및 사회적 불안 증가를 우려하여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약세가 전망됨(2020년 0.4% 예상).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e	2020 ^f
경 상 수 지	2,157.94	14,892.46	34,369.50	15,674.90	-30,683.40
경상수지/GDP	1.23	7.63	15.34	7.02	-18.11
상 품 수 지	12,221.30	25,373.50	47,484.20	32,167.60	-14,522.10
상 품 수 출	41,298.30	57,559.10	86,359.90	81,585.20	33,906.90
상 품 수 입	29,077.00	32,185.60	38,875.70	49,417.60	48,429.00
외 환 보 유 액	41,581.43	45,151.85	60,345.35	63,506.43	44,333.03
총 외 채	64,961.16	69,538.48	68,653.66	72,179.53	76,158.01
총외채잔액/GDP	37.15	35.63	30.64	32.33	44.95
D.S.R.	13.64	6.77	2.82	3.95	13.49

자료: EIU, OECD CRAM

원유 수출을 기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 국제유가 급락으로 적자 전환 전망

- 이라크는 2018년 원유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5위(1,472억 배럴)이며 원유 생산량 기준 세계 6위(일평균 4.6백만 배럴)이나 원유 소비량은 세계 26위(일평균 0.78백만 배럴)에 불과한 원유 순수출국으로, 2014년 이후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옴(2019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7.0%).
-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및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간 증산 경쟁으로 국제유가는 2019년 대비 현저히 낮아진 상황(2019년 배럴당 평균 64.04달러 → 2020년 1~6월 배럴당 평균 39.34달러)이며,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OPEC+의 감산 확대로 원유 생산량 또한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8.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OPEC+는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였으며, 2020년 4월 일시적으로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유 증산 경쟁이 발생하였으나 5~7월 간 역대 최대 감산 규모인 일평균 970만 배럴, 8월~12월 간은 다소 완화된 일평균 8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함.
- OPEC+ 합의에 따르면 이라크는 일평균 약 1.06백만 배럴을 감산해야 하나, 실제 감산량은 일평균 0.7백만 배럴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외채상환능력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및 보유외환 사용으로 총외채잔액 증가 및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2014년 이후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이어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 등 총외채잔액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외채 발행 외에도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2019년 말 월평균 수입액 약 10개월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구조적취약성

석유 부문에의 절대적인 의존도로 국제유가 및 생산량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8년 기준 석유 부문이 GDP 및 재정수입의 각각 50%, 90%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OPEC+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경제 역성장(실질GDP성장률 2019년 3.3% → 2020년 -5.8%), 경상수지 적자 전환(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2019년 7.0% → 2020년 -18.1%), 재정수지 적자 확대(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2019년 -3.9% → 2020년 -26.3%)가 전망되는 상황임.

정치·사회적 불안이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전체 인구가 이슬람교 내 시아파(67%) 및 수니파(30%), 아랍인(78%) 및 쿠르드족(18%) 등 여러 종파와 민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 권력도 의회 의장은 수니파, 총리는 시아파, 대통령은 쿠르드족으로 할당하고 있음.
- 군사적으로는 미국(이라크 내 미군 약 5천명 주둔) 및 이란(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지원)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와의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이후 미군 및 시아파 민병대가 서로 공습을 주고받는 등 미국-이란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불만이 반미·반이란 시위로 이어져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해외직접투자 유입 위축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석유 및 건설 부문의 성장잠재력 존재

- 이라크는 2018년 원유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5위(1,472억 배럴)이며 원유 생산량 기준 세계 6위(일평균 4.6백만 배럴)의 자원 부국으로, 코로나19 사태 해소 등 국제 원유 수요 및 가격 회복시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라크의 높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저유가 상황에서의 낮은 사업 수익성으로 인해 석유 부문 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풍부한 원유 확인매장량이 단기간 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S와의 전쟁으로 파손·파괴된 주택, 석유,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300억 달러 기금이 조성된 상황으로 인프라 재건에 따른 경제 회복이 기대됨. 다만, 이라크 내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정책성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프라 재건 지연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98개국 중 162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2014년 IS와의 전쟁 등으로 황폐화된 인프라의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의회 내 정파 권력 분산으로 정책 추진력 약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는 의회(의장 수니파)에서 총리(시아파) 및 대통령(쿠르드족)을 선임하는 구조이며 2018년 5월 총선 결과 의회 의석이 여러 정파로 분산, 특정 정파가 절대적 의석 우위를 점하지 않아 아델 압둘 마흐디 전 총리 선임(2018년 10월)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바 있음.
- 이라크 의회는 종파(시아파, 수니파), 종족(아랍, 쿠르드, 소수민족), 대외 노선(친미, 친이란, 중도)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2019년 10월 실업난 해소, 공공서비스 재건, 부패 근절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무력 진압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자 2019년 12월 의회는 아델 압둘 마흐디 전 총리 사임을 선임 1년 여 만에 가결하게 됨.
- 이후에도 의회 내 압도적 의석 우위를 차지한 정파가 없어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 선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경제 개혁 및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시위 발생에 대한 우려 및 의회 내 권력 분산으로 알카드히미 총리의 정책 추진력은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은 차기 총선(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정치동향

2019년 12월 총리 사임 이후 약 5개월 만에 신임 총리 임명

- 2019년 10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및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음. 이후 2020년 5월 약 5개월 만에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가 선임되었음.
- 이라크는 의원내각제로서 의회 의석이 여러 정파 간 분산되어 총리 선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짐.
- 알카드미히 총리는 2020년 6월초 석유, 외무장관 등을 포함한 내각 명단(22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려짐.
- IS와의 전쟁시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역할이 컸으며, 이란산 전력·발전용 LNG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임. 한편 IS 격퇴를 위한 작전 수행 및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 미군 약 5천명이 이라크 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전력·LNG 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주기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임. 미국 및 이란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정치적 안정에 필수적인 상황이나 이라크 의회 내 친미 대 친이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리 선임을 비롯 각종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2014년 IS와의 전쟁 등으로 사회 인프라가 대다수 파괴되었으나 정부 내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프라 재건 사업 지연, 발전·송전 시설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정전 등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될 수 있음.

사회동향

2020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반정부 시위 줄었으나 경제상황·정부 부패 등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

- 2019년 10월부터 수도·전기 등 기초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 높은 실업률, 정부의 부패·무능에 불만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700명이 사망하고 25,000명이 다쳤으며,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경제 악화 및 대규모 유혈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여 만에 사퇴하였음.
-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 등으로 반정부 시위는 전년 대비 약화된 모습이나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되면서, 이로 인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중 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국제관계

미국·이란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양국의 이라크 내 대리전 가능성 존재

- 군사적으로는 IS의 완전 소탕을 위한 연합 작전 및 이라크군 훈련 등을 이유로 이라크 내 미군 약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엑손모빌 등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등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임.
- 한편,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며 IS 격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바 있고 이라크 의회 내 친이란 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라크 앞 군사·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이란산 발전용 LNG 및 전력에 대한 이라크의 의존도가 높음.
- 2018년 3월 당시 하이데르 알아비디 이라크 총리는 티크리트, 라마디, 모술 등 이라크 내 IS 근거지 탈환 작전에 주축을 담당할 시아파 민병대에게 정규군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한 바 있음.
- 미국은 2018년 이란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경제제재를 복원하였으나, 이란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이라크에 한하여 제재 유예를 지속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1월 이라크를 방문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ods)군 사령관이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이라크 주둔 미군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간 공습이 이어지는 등 이라크가 미국-이란 간 갈등의 대리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이후 IMF 구제금융 의존

-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몰락 이후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400억 달러 중 약 80%에 달하는 대규모 채무를 탕감받은 이력이 있음(2004년 11월 합의).
- 이라크는 IS와의 전쟁 및 저유가 상황 등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2013년 2월 37억 달러, 2015년 7월 12억 달러, 2016년 5월 54억 달러 등 IMF로부터 수차례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짐.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이 높음

- OECD에 의하면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이라크 앞 여신 잔액 63.5억 달러 중 30.1억 달러를 연체(연체비율 47%)하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0.1월)	7등급(2019.1월)
Moody's	Caa1(2019.7월)	Caa1(2017.8월)
Fitch	B-(2020.4월)	B-(2019.7월)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3사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는 Caa1등급, Fitch는 B-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18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 세계 5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원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원유 순수출국으로 2019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왔으나,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국제 원유 수요 급감, 국제유가 폭락, OPEC+ 감산 합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2020년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전망됨.
- 2003년 미국의 침공, 2014년 이후 국제유가 약세 및 IS와의 전쟁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2004년 파리클럽 회원국 채권단으로부터의 대규모 외채 탕감, IMF로부터 수차례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금이 상당한 등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10월 전력·식수 등 공공서비스 부재, 실업난, 부정부패 시위가 발생하여 당시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으며 2020년 경제·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향후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아울러 미국 및 이란이 이라크의 정치·군사·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미국-이란 대립시 이라크가 양국의 전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